

[보도자료] 쿠팡, 충북 음성군에 대규모 첨단물류센터 짓는다

2020. 7. 24.

- 24일 기공식에 이시종 충북도지사, 임호선 국회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 참석
- 3만 평 규모로 1,000억 원 투자 2021년 8월에 완공 예정
- 충청북도 취약계층 지원 위한 '사랑나눔 전달식' 진행 1천만 원 상당 쌀 기부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상생 모범 될 것

2020. 7. 24. 서울 — 쿠팡이 충청북도 음성군 지방산업단지에 대규모 첨단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로켓배송 생활권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장에 더 속도를 낸다.

쿠팡은 24일 충북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임호선 국회의원,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새롭게 설립되는 '쿠팡 금왕 물류센터'는 축구장 14개 넓이(부지 약 3만 평)의 규모로 2021년 8월에 완공 예정이다. 총투자비용은 약 1,000억 원에 이른다.

쿠팡 금왕 물류센터는 로켓배송을 위한 전국단위 물류시스템 중 충청도 전역을 책임지는 역할로, 쿠팡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충청 지역의 로켓배송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진다. 쿠팡은 여기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관리 시스템, 작업자 동선 최적화, 친환경 물류장비 등을 도입해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첨단물류센터로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쿠팡 금왕 물류센터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통해 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충청도 지역의 미니기업(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업)들에게도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쿠팡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놓인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랑나눔 전달식'을 함께 진행했다. 전달식에서 쿠팡은 1천만 원 상당의 쌀을 음성군에 기부했다. 기부된 쌀은 군내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전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이웃사랑에도 앞장서는 나눔 실천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충청북도와 음성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물류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좋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전국을 잇는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해 더 놀라운 고객 경험을 만들고 고객들이 이 경험을 당연한 일상으로 느끼도록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1] 쿠팡이 24일 충북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쿠팡 금왕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새롭게 설립되는 쿠팡 금왕 첨단물류센터는 2021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사진2]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가 '쿠팡 금왕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롭게 설립되는 쿠팡 금왕 첨단물류센터는 2021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